‘할 수 있다 믿는다 괜찮다’ 를 읽고

 32154887 생명과학과 하민기

 주변 지인 중에 복싱을 하는 사람이 여럿 있어서 한국 복싱계가 얼마나 열악한 지를 알고 있었다. 세계권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말도 안 되는 몸 값을 받지만 이런 극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시에 복싱에 매진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장벽이 높고 보통 사람들로는 하기 힘든 스포츠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김주희라는 사람에 대한, 피와 땀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본래 복싱이라는 스포츠는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하여 엄청난 양의 연습량과 갖가지 생활 습관을 오로지 복싱 하나만을 바라보며 조절을 해야 하는 운동이다. 유복하거나 집이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취미로 즐길 뿐 몸을 버리면서까지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김주희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부분 갖지 못 하고 자라났다. 그러기에 자신과 닮은 복싱에 대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 종목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재능,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1만 시간의 법칙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인생을 4분의 1 정도를 살아보면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2인자의 자리가 익숙했으며 최고가 되면 남들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남들처럼 하면 남들처럼 살겠지 라는 생각이 어느덧 내 몸 일부와 같게 되었다. 이 책을 읽는 시기와 3학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부터 나는 생각을 조금씩 달리하게 되었다. 남들처럼 하면 남들보다 못 할 확률도 커질 뿐 더러 젊어서 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의 후회가 밀려올 것 같았다. 생각의 관점을 바꿔 생각해보면 남들에게 보이는 최고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최고가 된다 라는 마음가짐을 잡는다면 좀 더 나를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한 분야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닌 내가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는 부분이라도 삶에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기초는 닦아야 한다. 김주희의 경우 복싱만 한 것이 아닌 대학 졸업과 고전 섭렵이라는 보통의 스포츠 선수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복싱에는 불문율이자 정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세계에 수 십년간 몸을 담가온 관장의 언행을 보면 김주희라는 사람에 대한 방향을 잡는 길잡이 역할을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관장의 언행이 혹독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뒤쳐지는 것이 복싱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저자는 결국 부상과 시련을 겪으면서까지 여성 복싱 세계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쥐게 되었다. 모든 것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살면 분명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인이 된 사람들의 선택은 실패 혹은 성공을 맛 보건 그 결정은 모두 자신이 내리는 것이고 다만 선행자의 조언과 가르침을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